

피스&그린보트 안전관리 및 탑승 전 피난훈련

피스&그린보트가 사용하는 오션드림호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박을 제조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덴마크에서 건조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제조된 선박은 아직까지 해상 사고 및 침몰 사고를 겪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션드림호는 일본의 피스보트에서 매년 세계크루즈(3개월 투어, 1년에 약 3회 운항)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환경재단과의 단기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인 ‘피스&그린보트’ 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안전관리: 항만국통제(PSC·Port State Control)검사 (2014년 4월 19일)

항만국통제란 해당국의 감독관이 선박의 안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 관련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등에서 규정한 안전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현장 검사입니다. 오션드림호는 2014년 4월 19일 크로아티아 도브로브니크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결함(Deficiencies) 0으로, 안전설비 및 승무원 훈련이 모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 출항 전, 필수 탑승객 피난훈련 진행

오션드림호는 ‘선박 관련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 및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의 규칙·규정을 엄수하며 운항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항 전에 반드시 피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피난유도, 소방, 구명보트의 책임자인 실무자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으로 피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난·소방·구명설비에 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국제적으로 가장 큰 선급협회에 의한 검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① 탑승객 대상 피난 훈련

* 피난훈련 실시 시간: 출항 전 1시간

* 피난훈련 내용

- (a) 구명조끼 착용방법 설명과 조끼에 부착된 조명 및 피리에 관한 설명
- (b) 피난 시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이동해 달라는 당부
- (c) 비상을 알리는 신호(짧은 소리 7번, 긴 소리 1번)

* 참고사진



② 승무원 대상 피난훈련: 종합피난훈련 및 역할그룹별 훈련

* 훈련빈도

- 종합피난훈련: 약 1주일에 1회(피스&그린보트의 경우, 단기 크루즈이므로 출항 전후)

- 역할그룹별 훈련 : 매일

* 참석자: 전체 승무원

* 직급별 역할

선장	총 지휘
조타수	구명보트 준비(실제 물 위에 내리게 될 경우 조작)
기타 승무원	화재시 소화활동 복도 및 계단 유도 피난시 집합장소에서 승객 점호 및 지휘 객실이나 각 시설에 남은 승객이 있는지 여부 확인 등

3) 구명장비 보유 현황 (탑승 예상 인원 한국 측 500명, 일본 측 500명, 승무원 약 100여명)

장비	보유수량	정원
구명정	14대	1,462명
구명보트	46대	1,112명
구명조끼 및 예비구명조끼	전체승객인원 + α	